

문화가 있는 고양
6월의
공연 소식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 6월, 고양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낭만과 음악, 멋진 무대와 관객이 함께하는 고양아람누리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겨보자.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rtgy.or.kr 문의 ☎ 1577-7766



어울림누리 패밀리초이스 2
뮤지컬 <이상한 엄마>

국내 아동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백희나 작가의 동명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이상한 엄마>는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에 이은 세 번째 가족 뮤지컬이다. <이상한 엄마>는 2016년 출간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되고 2022년 뮤지컬로 제작돼 첫 공연부터 호평받았다. 섬세한 무대 구성과 기억에 남는 멜로디로 원작의 감동과 위트를 뮤지컬로 생생하게 구현한 이번 공연은 부모와 아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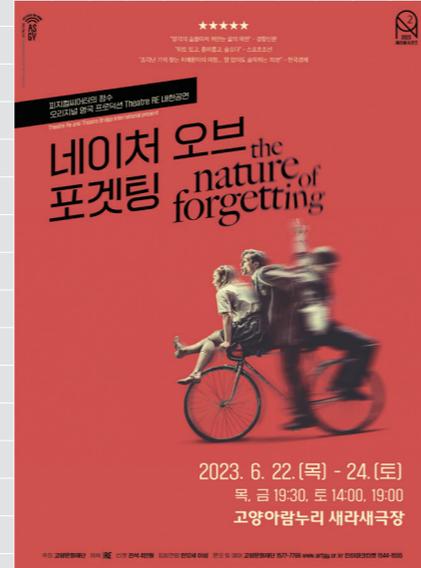
- + 일시 6. 17. (토) ~ 6. 18. (일)
11:00, 14:00, 16:00
- +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 + 입장료 (R석) 6만 원 / (S석) 4만 원



2023 고양아람누리
오페라콘서트 시리즈 X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밀당의 정석>

3년째 이어지는 아람누리 오페라콘서트 시리즈는 국내 정상의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하고 오페라 전문 스토리텔러의 해설을 곁들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6월의 오페라콘서트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밀당의 정석>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부파, 부제는 여자들은 다 그런 것,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는 다 그래”로 해석한 작품으로 오비디우스 <변신이야기>,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와 루도비코 아리오스토 <광란의 오를란도> 등 여러 작품을 참고해 코지 판 투테로 탄생하였으며, 당시 유럽 궁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남녀 간의 정절시험 사건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 + 일시 6. 17. (토) 16:00
11:00, 14:00, 16:00
- +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 + 입장료 (1층) 4만 원 / (2층) 3만 원



영국 Theatre RE 내한공연
네이처 오브 포겟팅

2017년 영국 런던 국제마임페스티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화제작이다. 국내에 처음 소개된 2019년 내한 공연과 2022년 국내 라이선스 공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한 영국 Theatre RE의 대표작 <네이처 오브 포겟팅>은 대사는 최소화하고 역동적이고 섬세한 몸의 언어로 표현하는 ‘피지컬씨어터(Physical Theater)’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23년 수도권 단독 개최공연으로,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 + 일시 6. 22. (목) ~ 24. (토)
목, 금 19:00, 토 14:00, 19:00
- +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 + 입장료 전석 4만 원



2023 아람 로열 클래식 2
<손열음을 피아노 리사이틀>

대한민국 대표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발매를 기념하여 투어 공연을 시작한다. 항상 모차르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져온 그녀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이번 피아노 소나타 전곡 투어 공연은 총 18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4개 도시 투어 연주를 통해 전곡을 완성 시킨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고양에서 만날 수 있는 리사이틀 무대로 세기를 뛰어넘어 마추한 작곡가와 연주자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가 그녀의 손끝을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는 공연이다.

- + 일시 6. 24. (토) 17:00
- +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 + 입장료 (R석) 7만 원 / (S석) 5만 원 / (A석) 4만 원



2023 아람 로열 클래식 3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바이올린 리사이틀>

30대 남성 바이올리니스트 중 최고의 실력자로 손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국내 첫 리사이틀을 갖는다. 2017년 서울시립교향악단 협연을 시작으로 국내 관객들을 만나온 그는 2022년 서울시향의 ‘올해의 음악가’로 활동하며 클래식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무대는 협연이 아닌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리사이틀 무대로 하델리히의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를 감상할 수 있다.

- + 일시 6. 28. (수) 20:00
- +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 + 입장료 (R석) 6만 원 / (S석) 4만 원 / (A석) 3만 원



2023 아람누리 마티네콘서트
클래식 유니버스 3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

2023 마티네콘서트 3번째 테마는 베토벤이다. 베토벤은 연말이면 전 세계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합창’을 포함한 9개의 교향곡과 협주곡, 소나타, 실내악, 성악곡, 오페라를 다수 남긴 예술가로, 이번 공연을 통해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교향곡 5번 ‘운명’과 교향곡 7번 등 청력을 잃고도 인류의 평화와 희망을 써내려간 불멸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피아니스트 조재혁, 그리고 김광현의 지휘와 코리아콤포케스트라의 연주로 악성(樂聖) 베토벤이 이루어낸 고전주의 음악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 + 일시 6. 29. (목) 11:00
- +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 + 입장료 전석 3만 원